

## **A Case Study on Therapeutic Music Making for Enhancement of Communications in Single-Mother Families.**

**Lee, Na 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how therapeutic music making affects the way of communications in single-parent families. To do this, the study conducted a therapeutic music making program in two families consisting of a mother and a child. Songwriting, Ostinato-creating, improvisation imitation, and ensemble were used as musical interven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the participant group B improved from 59 to 69.5 point after the program. However, the group A decreased from 81 to 75.5 point mainly due to frequent absences, differences in applying music.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verbal, nonverbal and musical responses from the program suggests that the group B gradually improved functional communications as each session develops. For the case of group A, at the initial stage, dysfunctional communications in verbal and nonverbal ones could be found. After the eighth session however, functional communications had increase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overall therapeutic music making has been an effective musical intervention in improving communication in single-parent families.

*Keywords* : *Single-parent families, Communications, Therapeutic music making*

---

\*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Art Teacher

##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사례연구

이나경\*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적 음악 만들기가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 2가족을 대상으로 노래 만들기, 즉흥 모방하기, 오스티나토 창작하기, 합주하기로 구성된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을 14회기 동안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에 측정한 대상자들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점수가 대상자 B는 59에서 69.5로 상승하였으나, 대상자 A는 잦은 결석 및 음악 적용의 차이로 인해 81에서 75.5로 감소하였다. 둘째, 대상자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음악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 B는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모-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고, 기능적 의사소통이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대상자 A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초기에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많이 나타나다가 8회기 이후 기능적 의사소통이 증가하였고, 음악적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다르게 초기부터 기능적 의사소통을 주로 보였으며, 프로그램 후반까지 유지하였다.

핵심어 : 한부모가족, 여성 한부모 가족, 편모가족, 의사소통, 치료적 음악 만들기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 강사 (qkqh7302@naver.com)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 등을 표현하고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형성에 있어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여, 가족, 교우, 동료 등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회적 활동을 원만하게 한다. 특히, 유아는 부모와 가장 먼저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이 때 학습되어진 의사소통 방식은 외부로 전이되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는 양 부모가 아닌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만으로 그 방식을 배우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과 문제가 많아 모-자간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더욱 절실하다(김영애, 2008).

Satir(1972)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비난형, 산만형, 초이성형, 회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비난형의 부모는 명령적이며 자녀에게 지나친 훈육을 하여 자녀는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자아정체감이 낮으며 공격적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이경남, 2008). 또한, 산만형의 자녀는 부모와의 원활한 대화를 유지하기 어렵고, 집중력이 낮아서 대충 말하거나 질문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경향이 많다. 또 회유형의 자녀는 부모에게 비위를 맞추어 주며 진정한 자신의 감정은 존중하지 않아서 자존감이 낮고, 부모에게 온전히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위축되므로 쌍방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오현정, 2008). 이러한 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감정적인 언쟁, 폐쇄적, 지나친 조언 등으로 교류하여 서로의 심리적 소외감, 자녀의 문제 행동,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며(김경화, 민하영, 이윤주, 2008; 김영희, 안상미, 2008; 김정호, 2002),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에 전이되어 기능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위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들이 필요하며, 실제 모-자 간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한 연구들에서는 공감적 이해와 경청, 지지, 개방적 자기표현 등이 효과적인 요소로 나타나며(배문정, 2010), 특히 음악치료는 감정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매체로서 좋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음악은 태아 때부터 접할 수 있는 예술 매체로, 개인의 인지적 수준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이다.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을 음악적으로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어서 감정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Boyle & Radocy, 1979), 선율, 리듬, 화성, 세기, 음색 등의 음악 요소들은 감각 자극제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에너지를 높여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은 가족의 의사소통에 유효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갈등을 갖고 있는 모-자녀가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은 경험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음악적으로 동등한 입

장으로 참여와 의사소통을 강화 할 수 있다(Magill & Slivka, 1986).

치료적 음악 만들기는 기존의 음악을 주선율로 하여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 합주의 리듬 및 화성을 창작하거나 가사를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 음악의 형식을 확장하여 연주하는 등 재창조하는 과정을 말한다(최병철, 2006). 특히, 노래 만들기(Songwriting)는 무의식적 기억 및 사고를 이끌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통찰과 서로의 강점을 나눔으로써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서로 공감과 경청을 하도록 이끌어 주고, 이해를 돕게 한다(도정은, 2010; 최미환, 2006; Osweiler, 1998). 오스티나토는 간단한 패턴을 음악 전체에 반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음악적 지식이 없이도 쉽게 창작할 수 있어(장은주, 2010), 모-자녀가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존중 및 지지적으로 소통하도록 이끌 수 있다. 또한 모방과 즉흥은 모-자녀가 음악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반영해주며 적극적인 음악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비언어적으로 자유롭고 솔직하게 창의적인 표현을 하며, 상대방을 수용하게 한다(문현희, 2004; 조효임, 1999). 그리고 합주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연주하면서 속도나 음고 등을 맞추어 경청하고 협동하게 하므로 서로를 존중하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유도한다(강승희, 2006; 우안나, 2006). 이와 같이 치료적 음악 만들기는 여성 한부모 가족이 함께하면서 의견을 교류하고 맡은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 가족의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 가족 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치료적 음악 만들기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은 여성 한부모 가족 모-자녀의 의사소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1) 프로그램 중재 이전과 이후, 여성 한부모 가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점수는 사전·사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2)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안에서 보이는 한부모 가족 모-자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적·비언어적·음악적 반응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II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시의 A복지관에 의뢰하여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 가족 중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자녀 2가족을 선정하여 세션을 진행 하였다. 어머니와 자녀는 신체·정신 병리적 장애가 없으며 가능한 음악학원을 다닌 경험이 적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사회복지사와 연구자와 비디오 분석을 통하여 ‘Satir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에 따라 분류하였다(김영애, 2008).

〈표1〉 치료적 음악만들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정보

	대상자 A		대상자 B	
	어머니	자녀	어머니	자녀
연령/성별	45	9 (남아)	41	12 (여아)
학력	고등학교 졸업	초등3학년	고등학교 졸업	초등6학년
현재직업	개인보육	학생	사무경리	학생
음악경험	합창단원	피아노학원		없음
낮시간 양육	가정에서 양육		혼자서 집에 있음	
월 수입	80-130만		80-130만	
참여자 외 가족	가족은 아니나, 가정보육으로 돌보는 남아 한명이 있음		대학1학년 아들이 있음	
모자가정 기간	9년		13년	

#### 1) 대상자 A(어머니: 비난형 자녀: 산만형)

대상자 A는 모자가정이 된지 9년이 되었다. 자녀는 사전검사를 할 때나 첫 음악활동 시간에 “역시, 내가 왕이라니까!”라며 다른 그룹원들에게 ‘비난형’의 자세를 가졌고, 활동 내에서 행동적으로는 산만한 모습을 보이며 어머니나 치료사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형’의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친구의 조카 한명을 보육해주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으나, 스트레스가 많으며 힘들어했다. 또, 어머니는 자주 아픈 편이었고, 신경이 예민하여 감정적으로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간헐적으로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녀와 관계가 원만하였으나, 어머니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 거야?”, “너 말 듣지 못해?” 라며 ‘비난형’으로 훈육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자녀를 매우 통제하며 권위에 의한 의사소통이 종종 일어났다.

## 2) 대상자 B (어머니: 비난형, 자녀: 회유형)

대상자 B는 모자가정이 된지 13년이 되었다. 어머니는 첫 만남 때 자녀에게 훈육이 심한 편이었는데, 자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짜증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아이가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티가 나요” 하며 걱정을 하였다. 실제 활동 내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언어적 반응 및 태도에 대하여 “또박또박 말해야지” 또는 “집중 좀 하세요” 등의 ‘비난형으로 심하게 훈육하였다. 반면, 자녀는 어머니의 지나친 훈육을 매우 수용적으로 침묵하며 경청하고 “네” 와 “알았어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어머니의 훈계에 위축되어 평소 발음이 부정확하며 목소리가 작은 편이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고집하다가도 어머니의 의견에 따르기도 하여 우유부단한 의사표현으로 어머니와 갈등이 많았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Barnes &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검사(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로 국내에서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이며, 부모용 질문지와 자녀용 질문지로 구성된다.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Olson 등의 신뢰도 검사에서 기능적 의사소통은 Cronbach  $\alpha = .87$ ,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Cronbach  $\alpha = .78$ , 전체는 Cronbach  $\alpha = .88$ 을 얻었다.

〈표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기능적 의사소통	10	1, 3, 6, 7, 8, 9, 13, 14, 16, 17
역기능적 의사소통	10	2, 4, 5, 10, 11, 12, 15, 18, 19, 20
합계	20	1-20

### 2) Satir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

각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애(2008)의 ‘Satir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를 도구로 하여 사회복지사와 연구자가 초기 세션(1-2회기) 비디오 분석을 하며 분류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40문항으로 각 유형별로 8가지 문항씩 구성되었으며, 유형별로 합산하여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대상자가 주로 쓰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한다.

### 3. 연구 절차

####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A복지관의 H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악기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사용한 악기는 패들드럼, 핸드드럼, 쟈뎀, 소고, 키즈드럼, 귀로, 우드블럭, 리듬스틱, 코끼리코,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탬버린, 심벌즈, 윈드차임, 핸드벨, 톤차임, 키보드, 오션드럼, 레인스틱, 에그셰이커, 카바사 등이다.

〈표 2〉 연구설계

사전검사	치료적 음악 만들기	사후검사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 당 60분, 총 14회기</li> <li>· 모-자녀 2 그룹</li> <li>·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li> </ul>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기능적 의사소통의 증진을 필요로 하는 2가족의 치료적 음악 만들기의 과정을 자료로 분석하였다. 14회기의 프로그램 전·후에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회기는 녹화를 하여 모-자 간의 언어적·비언어적·음악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의사소통을 위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은 초기(1-4회기), 중기(5-12회기), 종결(13-14회기)로 구성되었다.

### 4. 연구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양적 분석과 내용 분석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먼저 양적 방법으로는 대상자들에게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과 종결한 이후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의 검사 점수를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내용 분석에서는 음악 만들기 과정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석하고자 매 회기를 녹화하여 언어적·비언어적 반응 및 음악적 반응을 회기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연구자가 규명한 조작적 정의 즉, 의사소통과 관련된 두 가지 범주 및 하위요소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3 과 같다. 또한 다음 내용은 김영애(2008)의 저서의 사티어(Satir)의 일치적 의사소통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기술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조작한 의사소통의 범주이다(김경희, 이경순, 이미경, 2006; 백경숙, 옥경희, 전연진, 전효정, 조성연, 2009).

〈표 3〉 세션 분석의 두 가지 범주 및 내용

범 주	관련요인	내용
기능적 의사소통	공감하기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을 이해하며 상대방이 표현한 것을 반영하여 말하거나,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표현해 준다.
	경청하기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눈을 마주치거나, “응”, “그래” 또는 ‘들은 말을 되물어보기’ 등 주의 깊게 들은 것을 표현한다.
	자기개방 자기표현	상대방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낸다.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 한다.
	주도하기	의사소통이 유지 및 유도되도록 인도하며, 상대방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말한다.
	적절한 조언	상대방을 돕거나, 음악창작의 완성을 위해 긍정적 또는 이성적인 태도로 조언을 한다.
	침묵하기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침묵한다.
	긍정적 비언어	웃음, 스킨십, 눈 맞춤 등 상대방에게 신체 동작 또는 말이 아닌 음성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지나친 조언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훈육 적이고, 명령조로 말하며, 같은 조언의 말을 되풀이한다.
	피하기	상대방의 대화를 피하거나, 주제를 바꾸며 못들은 척 하고, 만칭 부리는 모습이다.
	비난· 비판하기	상대방의 태도, 음악, 언어적 발언 등에 대해 사실보다 과장되어 나쁘게 말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 5. 모-자녀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 1)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목표

(1) 초기 단계(1-2회기): 그룹원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음악활동에 흥미를 유도하여 환경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모-자 간의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둔다. 또한 음악 만들기에서 신체표현과 4박 리듬 등을 창작하는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연구자는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 및 음악적 능력을 진단하며, 대상자들은 음악 만들기 및 의사소통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2) 중기 1 단계(3-6회기): 모-자녀 간의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고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노래 만들기를 통하여 소망하는 가족의 모습을 토의거나 좋아하는 것과 서로의 장점에 대해 의견을 토론했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며 공감하고 경청하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3) 중기 2 단계(7-12회기): 오스티나토 만들기를 통해 언어적·비언어적·음악적 의사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각 회기별로 서로의 음악을 경청하고,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서로 공감적 이해를 도모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감소시키며, 기능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4) 종결 단계(13-14회기): 중기 2단계에서 창작한 음악을 완성하여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모-자녀가 함께한 것에 대한 성취감 및 공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그동안 함께 했던 순간들을 상기시키며 서로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여, 앞으로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강화 하도록 하였다.

2)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여성 한부모 가족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중재도구로 사용된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은 각 단계 및 회기별 목표에 따라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4-1〉 초기 단계 회기별 목표에 따른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회기/ 치료적 목표	음악 및 활동내용	치료적 근거
1 친밀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개 말 리듬/신체악기</li> <li>■ 자기 및 가족 소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과 억양으로만 이루어진 말 리듬은 세 글자의 이름을 강조하며 스스로 이름을 말하고, 타인이 모방함으로써 음악적 의사소통을 유도한다.</li> <li>● 리듬에 맞추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음악의 역동에 따라 활동 에너지를 높여 적극적인으로 표현하도록 이끈다.</li> </ul>
2 음악적 환경에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tch the beat/ 4박리듬</li> <li>■ 4박 리듬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4박의 음악에 맞추어 4박 리듬을 모-자녀가 함께 연습 및 연주하며 션여림과 빠르기를 맞추어 감으로써 서로 모방하고 경청한다.</li> <li>● 각 가족이 맡은 4박 리듬을 비규칙적인 순서로 노래 지시에 따르며 노래를 경청하고 음악에 흥미를 유발한다.</li> </ul>

〈표 4-2〉 중기1 단계 회기별 목표에 따른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회기/ 치료적 목표	음악 및 활동내용	치료적 근거
3 의사결정 과정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mama, kaa(탄자니아 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모습 가사 만들기</li> <li>• 보물</li> <li>▪ 좋아하는 음식 가사 만들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3화음으로 된 짧은 동기들의 반복적인 구성이 노래 및 가사를 익속하고 흥미롭게 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안전한 음악적 환경이 된다.</li> <li>• 소망하는 가족의 모습 또는 음식에 대해 대화하고 가사를 창작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 및 공감하며, 상대방을 수용한다.</li> </ul>
4 의사소통 과정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mama, k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 창작하기</li> <li>• Love</li> <li>▪ 서로의 장점, 추억의 노래 만들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의 조성 및 다양한 화성과 리듬에 따른 연주는 모-자녀의 4박 리듬이 창의적으로 표현되며 서로 즐겁게 모방하도록 이끈다.</li> <li>• Love의 장조 및 단2도 진행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자녀가 긍정적인 모습들을 떠올리고 표현하도록 조성하며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노래는 지지적인 역할 및 정서과 표현을 이끈다.</li> </ul>
5 공감적 이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명 노래 창작</li> <li>• ‘어린왕자’ 테마</li> <li>▪ 생활 속의 한 장면으로 공감 나누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동생’을 붓점 또는 썸어림, 아티클레이션에 의한 변주로 밝은 분위기를 제공하여, 서로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모습과 자신이 소망하는 모습 및 별명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li> <li>• ‘난 여행을 떠날 거예요’의 노래와 음악적 공간은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도하며, 가족의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경험을 나누고 상대방은 공감적 이해로 응답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한다.</li> </ul>
6 공감적 이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왕자’ 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 만들기</li> <li>• ‘너는 특별하다’ 테마</li> <li>▪ 상대방을 칭찬하고 노래하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카드로 창작된 6박의 불규칙적 리듬을 3박의 규칙적 리듬으로 완성하면서 음악적 표현 및 의견에 대한 조인과 공감하기를 한다.</li> <li>• 서로의 모습 중 고마웠던 점에 대해 표현하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의 가사의 반복과 원전 5도, 장6도의 도약진행으로 깊은 감정을 표현하여 창찬의 메시지에 신뢰감을 높인다.</li> </ul>

〈표 4-3〉 중기2 단계 회기별 목표에 따른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회기/ 치료적 목표	음악 및 활동내용	치료적 근거
7 개방형 질문 및 적극적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흥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악기로 질문&amp;응답하기</li> </ul> </li> <li>● 젓가락행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약약’ 을 교대로 연주하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박의 새로운 리듬을 신체악기로 익힘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리듬 표현을 증진시키고 질문&amp;응답(Call&amp;Response) 형식으로 즉흥리듬을 표현 및 경청하며 음악적 의사소통을 한다.</li> <li>● 강박/약박의 연주를 모-자녀가 나누어 함으로써 음악적으로 경청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평소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명령하기, 비판하기, 감정적으로 인정하기 등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킨다.</li> </ul>
8 적극적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젓가락행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타악기 오스티나토 만들기</li> </ul> </li> <li>● 젓가락행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율악기로 ‘강/약약’ 교대로 연주하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녀는 마주보는 자세로 신체타악기 오스티나토를 연주 함으로써 눈 맞춤, 웃음, 표정 등의 긍정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유도한다.</li> <li>● 치료사의 음악적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신체타악기 오스티나토의 강도와 빠르기를 함께 변형하며 모방 및 공감한다.</li> <li>● ‘젓가락 행진곡’은 모-자녀가 서로의 박을 교대로 연주하며 곡을 완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연주를 경청한다.</li> </ul>
9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 및 음악에 따라 악기 배치하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음악은 각 악구의 가사가 시각적 이미지 및 정서를 담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리듬/음색 등의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li> <li>● 모-자녀는 각자 하고 싶은 악기와 리듬을 각 악구에 자유롭게 표현하여 개인적인 음악적 의견 및 감정을 표현한다. 또, 서로의 음악과 의견을 경청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나눈다.</li> </ul>
10 자기개방 및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시련과 꿈, 가사 만들기</li> <li>● 노래의 각 악구를 표현하는 악기배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속에서 힘들어할 때와 힘을 얻는 것, 그리고 함께 갖는 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봄으로써 평소 하지 못했던 솔직한 자기표현을 한다.</li> <li>● 노래 만들기의 수식어와 서술어는 모-자녀의 특정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제시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음악은 가족의 시련 및 꿈에 대해 모-자녀가 마음을 개방하여 긍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한다.</li> </ul>

<p>11 적극적 경청 &amp; 협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가족</li> <li>• 2박 리듬 교대로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4박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2박씩 주고받는 형태로 구조화 되어 모-자녀가 연주하는 과정에서 경청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연주를 통한 음악적인 몰입은 협동 및 공감을 이끈다.</li> <li>• 각 모-자녀는 함께 창작한 ‘우리들의 가족’에 맞추어 악기 연주함으로써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다.</li> </ul>
<p>12 공감적 이해 &amp; 협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배치 및 리듬 만들기</li> <li>▪ 돌림노래로 부르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림노래의 한 파트를 담당하는 연주자는 타인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연주하는 파트에 집중해야만 음악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li> <li>• 돌림노래를 부르며 신체타악기 오스티나토를 함께 연주하는 것은 음악을 통한 협동을 유도하여 가족에게 집중하고, 음악적 공감을 할 수 있다.</li> </ul>

〈표 4-4〉 종결 단계 회기별 목표에 따른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회기/ 치료적 목표	음악 및 활동내용	치료적 근거
13 긍정적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가족</li> <li>▪ 가족의 노래 발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론도 형식으로 각 가족의 곡을 발표하면서 모-자녀는 그동안의 과정을 떠올리며 경청하기, 조연하기, 공감하기를 한다.</li> <li>• 각 가족별로 독주 및 후렴구의 돌림노래를 통해 협력하여 완성한 것에 대한 성취감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li> </ul>
14 세로운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왕자</li> <li>▪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녀가 ‘음악 만들기’를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과정을 회상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되새김으로써 가족의 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음악에 담아 전함으로써 모-자 간의 경청, 공감, 자기 개방, 정서적 지지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li> </ul>

### III .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대상자의 의사소통 하위요인별 점수 사전 사후 비교분석

〈표 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구분	기능적		역기능적		
	사전	사후	사전	사후	
A	모	45	40	42	40
	자	41	42	34	29
B	모	27	36	27	31
	녀	32	38	32	34

##### 1) 대상자 A

대상자 A의 어머니는 기능적 의사소통이 45점에서 40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도 42점에서 40점으로 감소하였다. 대상자 A 자녀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41점에서 42점으로 상승하였으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34점에서 29점으로 감소하였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의사소통 점수가 감소하여 기능적 의사소통이 감소되었다고 나타났다. 이에 A가족의 점수가 감소된 요인을 내용분석을 통해 비추어 볼 때, 타인을 인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사전 검사 때 반영되어 부적절하게 높은 점수였다고 보여지고, 사후 검사 때는 모-자의 잦은 결석과 음악 적용의 난이도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 2) 대상자 B

대상자 B 어머니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27점에서 36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도 27점에서 31점으로 증가하였다. 대상자 B의 자녀는 기능적 의사소통이 32점에서 38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도 32점에서 34점으로 증가하였다. 대상자 B 가족은 기능적 의사소통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출석률과 프로그램의 적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 여성 한부모 가족 의사소통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 가족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변화가 언어적 · 비언어적, 음악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고자 관련요인을 토대로 내용 분석을 하였다. 먼저, 〈언어적 · 비언어적 반응〉은 대화를 중심으로 상황 설명과 함께 서술한 후, 대화 중 나타난 음악 창작물 또는 음악적 의사소통은 ㉠/㉡, ㉢ 순으로 기호를 붙여 아래 〈음악적 반응 및 창작 활동〉에 설명하였다.

1) A가족 (모: 비난형, 자: 산만형)

(1) 초기(1-2회기): 그룹원 · 음악적 환경에 적응 및 친밀감 형성

회기/ 활동	언어적 · 비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및 창작활동	관련요인
1 가족표현 동작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는 “(자녀의 몸을 잡고 자신 쪽으로 돌리며) 엄마 하는 거 봐봐, 이거는 어때?”라고 주도 하고, 자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흔들고 다른 가족만 보며) 몰라몰라!”라고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적 반응 관찰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 주도하기</li> </ul>
2 리듬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큰 목소리의 혼잣말로) 이것 봐, 내가 리듬 리듬 리듬”라고 반복함.</li> <li>• ㉠리듬을 발표하며 자녀는 (악보 또는 다른 그룹원 을 보며) 연주하고, 어머니는 (악보만 보며) 연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와 자녀가(㉠)를 연주하며 박이 일치하지 않고 자녀는 f, 어머니는 mf로 각각 따로 연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 자기표현</li> <li>• 모-자: 일방적 의 의사소통</li> </ul>



자녀는 어머니보다 다른 가족을 많이 관찰하였고, 어머니는 자녀만 바라보며 웃음을 유지할 때가 많았다. 자녀는 자신의 음악적 표현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비음악적 창작에는 “몰라”하며 회피하였다. 2회기의 리듬 발표를 하며 자녀와 어머니는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각자 따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중기1(3-6회기): 모-자녀 간 의사 결정 과정을 탐색/ 상호 공감적 이해와 수용으로 신뢰감 형성

회기/ 활동	언어적 · 비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및 창작활동	관련요인
3 4박리듬 즉흥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리듬치기를 4박보다 길게 ④처럼 하자. 어머니는 “(인상을 찡그리며 강한 어조로)4박을 한번만 하고 끝내야지!”하고 말하였고, 자녀는 계속 (허공 또는 자신의 몸을 보며)리듬치기를 함. 어머니와 자녀는 ⑥리듬으로 반복하며 자녀도 (어머니와 눈 맞추며) 리듬치기를 하고, 어머니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자녀를 보며 웃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J J J J J (무릎 발 손뼉 손뼉 손가락 튕기기), ㉠ J J J J J (발발발발 무릎 무릎 손가락 튕기기) 등을 제시함.</li> <li>• ⑥ ‘J J J J’ 리듬을 하며 “차 차 차차 차”로 말리듬을 넣어 표현함. 어머니와 자녀는 ⑥리듬으로 3분 이상 즉흥 리듬을 주고 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 비난형(훈육하기),</li> <li>• 자: 산만형(회피함) → 모-자: 공감하기</li> </ul>
5 오스티나토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②리듬을 제시하자. 어머니는 “(인성을 높여서)뭐야 더 안 좋잖아.”라고 말하고, 자녀는 “(애교를 부리듯)나빠나빠나빠”하고 말함. 어머니는 ④리듬을 만들어 “(차분하게 권유하듯)이거 해봐” 하였고, 자녀는 “(호감기듯이)좋은데?”하며 계속 연주함. 자녀가 어머니와 (눈맞추며 웃음)을 보이자, 어머니도 (다정하게 눈맞춤)하며 연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둘째 박을 바꿔 ‘J J J J J’ ③) ④)를 하자. 어머니는 ‘J J J J J’ ④)리듬으로 규칙적이고 안정되게 바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 자기표현/ 모: 비판하기 → 공감하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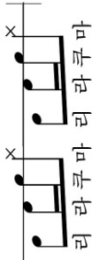


자녀가 산만한 모습을 보이자, 초기와 다르게 어머니는 강한 어조로 훈육하였고, 자녀는 어머니의 눈빛을 회피하거나 애교를 부리며 갈등을 피했다. 자녀는 어머니와 리듬 연습을 하며 어머니의 음악을 경청하였고, 자신의 리듬과 불일치되자 구음으로 리듬을 맞추는 시도를 하거나 어려운 리듬을 보다 쉬운 리듬으로 제안하였다. 음악적으로 서로 일치 되면서 자녀는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어머니도 훈육적인 태도에서 자녀의 의견 및 음악을 존중하며 공감 하였다.

(3) 중기2(7-12회기): 상대방에게 개방형 질문 및 적극적 경청하기/자기표현 및 자기개방의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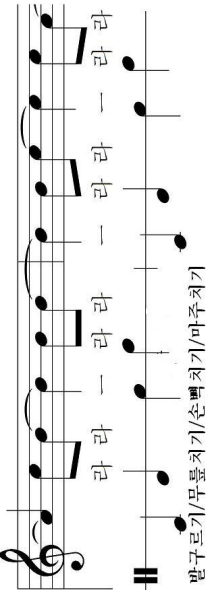
7회기에 어머니는 창작시간이 주어지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하고 일방적으로 질문했고, 자녀의 의견이 틀리면 “이거 아니잖아”하며 다그치거나 자신이 의견을 제안하였다. 자녀는 어머니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 하였는데, 음악적으로 오랫동안 연습하며 서로 일치되는 경험을 하였다. 9회기에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로 노래 만들기 한 것을 발표하기 부끄러워하자, 어머니는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 타일렀으며 자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청 하였다. 점차 어머니는 자녀를 존중하였으며, 11회기에는 자녀에게 개방형 질문을 하며 여유롭게 자녀에게 대하자,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하였다.

회기/ 활동	언어적 · 비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및 창작활동	관련요인
7 4글자 단어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K2, K2.”라고 말하며 ⑥리듬으로 신체동작을 하자 어머니는 가만히 지켜봄. 어머니는 자녀처럼 몇 번 해본 후, “(자녀와 눈 맞추며)K2는 세글자인데?”라고 말한 후, “리라쿠마, 리라쿠마로 하자”고 함. 어머니와 자녀는 ④과정으로 오랫동안 연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⑥ ‘발구르기-무릎치기-손뽀치기-손가락 뿡기기(ㄱ ㄱ ㄱ)’를 제시함.</li> <li>• ④과정을 연습하며, 어머니의 말리듬 목소리가 mf, 자녀가 mp에서 점차 mf로 어머니와 같이짐. 자녀의 리듬은 빠른 템포에서 점차 정확한 리듬으로 어머니와 함께 연주함.</li> <li>• ④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 제안하기/ 모: 경청, 제안하기 → 공감</li> </ul>
9 노래 만들기 창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우는 목소리처럼)아~, 아~”라고 하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어!, 괜찮다고~.(타이르듯이)괜찮은거야. 잘하잖아. 잘하면서 왜 그래.”라고 말함. 자녀의 노래(㉘)를 어머니가 부르기 시작하자 자녀는 어머니에게 몸을 기대어 (경청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노래가사 ㉘: “문득 아프다 느낄 때 엄마를 봐요, 힘이 되는 엄마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우리들의 꿈 엄마를 만들어가요, 아플 때 찾는 사랑의 힘으로” - 자녀의 노래를 어머니가 발표할 때, 어머니는 자녀를 감싸 안고 노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 조언하기, • 자: 경청</li> </ul>
11 노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는 자녀에게 “(작은 목소리로 눈 맞추며) 뭐가 필요하지?” 라고 물어보자, 자녀는 “(큰소리로) 집중력!, 아~, 공부!” 라고 대답한 후, 노래함. 그리고 “(웃으며)오늘 아이디어는 내가 짜다!” 라고 말하여, 어머니도 자녀를 보고 웃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사한 가사: “문득 힘들다 느낄 때 운동을 해요 힘이 되는 운동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우리들의 꿈 야구선수 만들어가요 달리기와 공부 집중력 사랑의 힘으로” - 어머니보다 자녀의 노랫소리가 더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 개방형질문, 자: 자기표현 • 모/자: 공감, 자기표현</li> </ul>



(4) 종결(13-14회기): 기능적 의사소통 및 새로운 관계

어머니와 자녀는 신체 오스티나토로 돌림노래를 연주하며 호흡이 잘 맞았고, 연습을 하면서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주가 끝나고 자녀와 어머니는 서로를 안아주고 장난스러운 몸집을 하며 크게 웃었다. 또한, 14회기에 자녀가 편지쓰기를 어려워하자 어머니는 초기의 부정적 감정으로 훈육하던 것과 달리, 자녀의 모습을 살피면서 차분하고 느린 속도로 말을 하며 변화된 모습이었다.

회기/ 활동	언어적 · 비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및 창작활동	관련요인
13 신체오스티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 오스티나토로 ㉔를 하며 마주보고 연주하면서 어머니는 (미소)를 보이고, 끝난 후 자녀의 손을 잡고 얼굴을 들이대며 (크게 웃음).</li> <li>자녀도 박수를 치며 웃음.</li> </ul>	<p>어머니와 자녀는 돌림노래에서 연주하는 신체악기 오스티나토를 창작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자: 긍정적 비언어</li> </ul>

## 2) B 가족



(1) 초기(1-2회기): 그룹원 · 음악적 환경에 적응 및 친밀감 형성

회기/ 활동	언어적 · 비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및 창작활동	관련요인
2 리듬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⑥과정으로 연주하자,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거리를 멀리하며 “(인상 찌푸려서)너 너무 크잖아?!”라고 하자, 자녀는 “(웃으며 큰 소리로)헤헤헤”함.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꼭 바로 앉아서 해야지.”하자, 자녀는 “(어머니와 등지고 앉아서 급하게)알았어”하고 대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④과정: 4박리듬 연습과정-어머니와 자녀는 패들드럼으로 1 2 3 4 연주하였는데, 자녀는 초기에 mf로 연주하다가 몇 번 후 ff로 연주하였고, 어머니는 자녀의 소리가 커지자 초기 mf 연주하다가 점차 mp로 연주하며 연주를 멈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반응-자: 비정정</li> <li>• 언어반응- 모: 비난형(훈육하기), 자: 회유형(비위맛 추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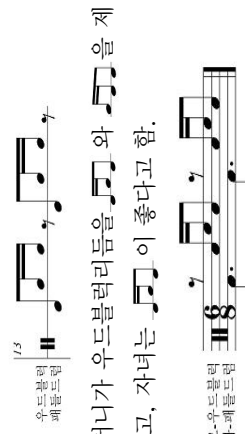
어머니는 자녀의 자세, 말소리, 행동 등에 대해 사소하게 관여하며 ‘뚝버로’, ‘정확하게’를 강조하며 매우 통제적인 모습이었고,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타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웃음으로 넘겼다. 자녀는 처음 접하는 음악활동을 즐거워하며, 어머니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자녀의 큰 악기 소리를 거부하여, 서로의 연주가 일치되지 않았다.

(2) 중기1(3-6회기): 모-자 간 의사 결정 과정을 탐색 / 상호 공감적 이해와 수용으로 신뢰감 형성

소망하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자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달랐다. 처음에 어머니는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듯 자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재차 말하였으나, 자녀가 ‘부드러운 가족’이라고 제안을 하자, 평소 자녀가 어머니와 오빠에게 위축되어 부드러운 가족을 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자녀를 이해했다. 5회기에도 처음에는 자녀는 여러 가지를 제안을 어머니가 거부하였으나, 잠시 후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는 점차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가졌고,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증가하였다.

회기/ 활동	언어적 · 비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및 창작활동	관련요인
3 가족표현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먼저 어머니를 보고 “(웃음)행복한 우리집”이라고 하자, 어머니는 “부지런한”으로 하자”라고 말할. 자녀가 “행복한우리가족”라고 다시 한번 제시하자, 어머니는 “부지런해야 행복 한 가족이 되지”라고 함. 자녀는 “(작은 목소리로)부드러운 하자”라고 한 후, 어머니를 (쳐다보며) 손을 잡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망하는 가족의 모습에 대한 가사를 창작한 후, 발표 하면서 어머니가 가사를 틀리게 부름(㉔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 자기 표현, 경청</li> </ul>	
5 노래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는 “엄마는 뭐할까?”하자, 자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엄마는 날 쯤해. 요리 잘해 엄마, 화장엄마”라고 하자, 어머니는 “(다른 곳을 보며 짐목)” 함. 잠시 후, 자녀가 “엄마는 짬순이”라고 하자, 어머니는 “(몸을 흔들고 인상 쓰면서)아니, 그거 말고 딱 거”라고 하며 자녀를 쳐다봄. 자녀가 (침묵)하며 가만히 있자, 어머니는 “은이, 그래 짬돌이라고 할께”함. 노래가사를 ㉔로 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제안하기, 모: 경청, 공감</li> <li>• 모-자: 공감, 경청</li> </ul>	

(3) 중기2(7-12회기): 상호 공감적 이해와 수용으로 신뢰감 형성/ 자기표현 및 자기 개방의 의사소통/ 악기 연주를 통한 협동

회기/ 활동	언어적·비언어적 반응	음악적 반응 및 창작활동	관련요인
7 리듬 오스티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리듬을 하며, 자녀는 (어머니가 연주할 때 소리를 들으며 눈맞춤을 함), 박이 약간 느려지자 자녀는 여러 가지 리듬을 제안함.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이렇게 해봐”하여, 어머니가 리듬을 여러 가지 연주하자, 자녀는 “이게 좋아”라고 함. ④과정으로 연습하며 자녀는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우와, 우리 딱딱 맞는다!”함.</li> </ul>	<p>④과정: 어머니는 우드블럭, 자녀는 패들드럼을 연주함.</p>  <p>→ 발표를 하며 점점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연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 경청, 제안하기,</li> <li>모: 경청 → 모-자: 공감</li> </ul>
9 악기배치/아름다운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는 코끼리코를 연주하며 “하늘을 봐요, 엄마 이럴 꺼야, 신나잖아.”하자, 자녀는 “그거 너무 따다닥 거리잖아”라고 말함.</li> <li>자녀가 “제꺼는 맞는데요, 엄마께 잘 안 맞아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호호호(웃으며), 엄마가 너무 엄마 생각만 했구나?”라고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적 반응 관찰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 자기표현, 자:조언하기 → 모: 공감</li> </ul>
11 합주 창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는 자녀에게 “뭐야, 제대로 해야지.” “파닥을 조금 빨리 해, 엄마 하고 나서 해야지” 라고 하여, 연주하다가 자녀는 “(웃으며) 아~ 진짜 엄마 뭐야, 다시 다시 다시” 함. ⑥과정으로 어머니는 “우리 쉬는 동안 이렇게 손으로 치자” 고 말하고, 자녀는 수용하며, “(웃으며)응” 이라고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과정: 어머니(카바사): ♪, 자녀(우드블럭) ♪ → 정확한 연주를 위해, ♪에서 무릎을 손으로 치기로 하며 연습함 → 발표: 자녀(우드블럭) ♪, 어머니(카바사) ♪ 로 정확한 리듬을 연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 조언하기, 자:주도하기,</li> <li>모: 제안하기, 자: 수용</li> </ul>

7회기부터 오스티나토를 창작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소리에 경청하고 함께 리듬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어우러지면서 “우리 딱딱 맞는다.”하고 좋아하였다. 어머니는 음악적인 기술에 대해 자녀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묻고, 모방하고 연습하며 자녀를 존중하였고, 11회기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음악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동하였다.

(4) 종결(13-14회기): 기능적 의사소통 및 새로운 관계

회기/ 활동	언어적 · 비언어적 반응	관련요인
14 편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지쓰기를 한 후, 어머니는 “(웃으며)어떻게 (자녀)의 생각하고 엄마하고 똑같지?”하며 자녀를 보며 이야기함. 자녀는 어머니의 편지를 본 후, “엄마가요 마지막에는 잘 따라 와 주세요 호 호 모: 자기표현, 자: 경청 호호”하고 함.</li> </ul>	
	<p>서로에게 편지 쓴 것을 발표하며, 자녀는 “음악시간에 엄마가 나랑 잘 맞춰주고 화나도 참고 함께 웃어주어서 고마워요, 앞으로 더 많이 웃고 이야기도 하자요”하였고, 어머니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만 전달하다가 부딪혔었는데, 음악을 통해 서로 많이 웃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내용이 같다며 뿌듯해 하였다. 실제, 초반에 어머니가 자녀를 훈육하거나, 자녀가 어머니에게 위축되어 있던 모습에서 변화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증가되었다.</p>	

## IV. 결론

본 연구는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 2 가족 모-자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래 만들기, 모방 및 즉흥, 오스티나토 창작, 합주하기를 통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대상자들의 변화를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점수와 언어적·비언어적·음악적 반응의 내용분석을 통해 의사소통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가족의 어머니는 '비난형'이며, 자녀는 '산만형'이었으며 각자 다른 활동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비난형의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노래 만들기'를 할 때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담은 훈육보다는 차분한 어조로 '개방형 질문'을 하거나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 및 공감 할 때가 많았다. 이는 긍정적인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음악적 분위기와 가사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 자녀에게 애정·지지적인 태도의 의사소통을 이끌었다고 본다. 또한 자녀도 초반에 장난스러운 모습에서 자기표현을 정확히 하고 어머니와의 음악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모방 및 즉흥'을 할 때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집중하고 자기표현 하던 모습과 일치한다. 다른 활동 보다 '모방 및 즉흥'에서 '산만형'의 자녀는 자신의 음악적 표현을 당당하게 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였고, 어머니와 경청 및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였다.

둘째, B가족의 어머니는 '비난형'이며, 자녀는 '회유형'이었고, 모-녀는 초기부터 치료적 음악 만들기에 따른 의사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효과적이었다. 이전에는 어머니가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훈육하며 예민하였으나, 자녀와 '모방 및 즉흥'이나 '오스티나토 창작'을 하면서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며 반영하는 수용적인 태도와 의사소통이 증가하였다. '회유형'의 자녀는 평소 어머니에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음악 만들기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 및 감정이 어머니에게 수용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으면서 보다 솔직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하였다. '모방 및 즉흥'과 '오스티나토 창작'은 동작 또는 리듬을 통한 창작이 많았는데, 역동적으로 변주되는 음악에 따라 반복적인 동작을 창의적으로 과장 및 축소하여 서로 모방하면서 경청과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모-자녀에게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의 중요성과 대상자에 따른 음악 적용 차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 또한, 음악의 역동 및 음악적 의사소통은 경청 및 공감, 자기표현을 통한 기능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면을 촉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족 의사소통 증진에 음악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 가족 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할 경우 이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발전될 수 있으나, 의사소통은 아직 음악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서적지지 및 가족 갈등을 위한 음악치료가 필요하다. 이렇듯, 이 연구는 의사소통과 한부모 가족이라는 대상에 음악치료의 영역을 확장에 기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모-자녀 간 음악적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유도되어 변화를 가져온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모습을 감소시키고, 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한 공감, 경청, 존중, 자기표현 등을 음악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전이되어 가족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지며 이혼으로 인한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족 또는 일반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고, 실제 의사소통 개선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본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승희 (2006). 협동학습을 통한 음악 창작학습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5학년 음악과 수업을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 민하영, 이운주 (2008).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5-23.
- 김경희, 이경순, 이미경 (2006).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서울: 현문사.
- 김영애 (2008). *사티어의 의사소통방법론*.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센터.
- 김영희, 안상미 (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 김윤희 (1989). *부부관계·부모-자녀 의사소통·가족 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정호 (2002). *결손가정 아동의 학습활동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인천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정은 (2010). *그룹 노래 심리치료가 뇌졸중 환자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희 (2004).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Carl Orff의 음악교수법*.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정 (2010). *부모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경숙, 옥경희, 전연진, 전효정, 조성연 (2009). *가족관계*. 서울: 양서원.

오현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안나 (2006). 의사소통을 강조한 치료적 음악활동이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 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남 (2008).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은주 (2010). 칼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한 창작수업활동 지도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효임 (1999).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최미환 (2006). 노래심리치료. 정현주 외(편),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pp. 236-266). 서울: 학지사.

최병철 (2006).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H. Olson et al., *Family Inventories :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pp. 33-48).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oyle, J. D. & Rodocy, R. E. (1979).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3r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Magill, L. & Slivka, H. (1986). The conjoint use of social work and music therapy in working with children of cancer patients. *Music Therapy*, 6A(1), 30-40.

Oswailer, M. E. (1998). The use of music therapy techniques to help individuals cope with psychosocial aspects of epilepsy: Three case stud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

- 게재신청일: 2011. 10. 17.
- 수정투고일: 2011. 11. 01.
- 게재확정일: 2011. 11. 13.